

KGC인삼공사 디우프 "끝까지 뛰고 싶었는데…종료 아쉬워"

등록 2020.03.24 17:53:56



KGC인삼공사 디우프(오른쪽). (사진 = 한국배구연맹)

[서울=뉴시스] 김주희 기자 = 여자프로배구 KGC인삼공사 발렌티나 디우프(27)가 리그 조기 종료에 대한 아쉬움과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디우프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끝까지 뛰고 싶었지만, 리그가 끝났다. 시즌은 짧았지만, 이번 비상사태에서 모두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지난 23일 V-리그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

지난 3일 리그를 중단한 뒤 재개 여부를 고민했지만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서지 않으면서 결국 시즌 종료를 택했다.

한국에 남아 리그 재개를 기다리던 디우프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한국은 나를 환영해주고, 큰 감동을 줬다. 모두에게 감

사하다"며 인사를 잊지 않았다.

디우프는 2019~2020시즌 트리아아웃(외국인 공개선발)에서 전체 1순위로 KGC인삼공사 유니폼을 입었다. 이탈리아 국가대표 출신인 그는 이번 시즌 26경기에서 832득점으로 득점 부문 1위에 오르며 제 몫을 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